



국무조정실
국무총리비서실

보도자료

2017. 5. 16(화)

작성
·
문의

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
부장 이진원 / 담당 이상훈
(Tel. 02-2100-2045)

* 엠바고 : 5.16(화) 16:00(행사종료) 이후 사용

「2017 U-20월드컵 대테러종합훈련」 실시, 안전한 대회 개최에 만전

- U-20월드컵 대회, 5월20일부터 6월11일까지 수원 등 6개 도시에서 개최
- 동시 다발적 복합테러 상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안전한 대회 뒷받침

< 주요내용 >

- 정부는 5월 16일(화) 오후 수원종합운동장 광장에서 국가테러대책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「2017 U-20월드컵 대테러종합훈련」 을 실시
 -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지원하에 6개 기관, 400여명이 참가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훈련을 통해,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회 개최 지원
- 이번 훈련은 월드컵 대회기간중 국제테러조직의 동시 다발적 복합 테러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,
 - 초동조치 단계부터 폭발물 처리, 테러범 진압 등 관계기관의 합동 작전 절차와 사상자 구조·구급을 위한 협력대응의 전 과정을 점검
-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대회를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 없이 안전하게 치러내야 함을 강조하고,
 - 테러 위협철폐에 대한 모니터링 등 긴밀한 정보공유와 함께 상황 관리 체계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

- 정부는 5월 16일(화) 오후 수원종합운동장 광장에서 신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국가테러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「2017 U-20월드컵 대테러종합훈련」 을 실시하였다.

- 이번 훈련은 5월 20일부터 약 3주간 전국 6개 도시*에서 개최되는 「제 21회 FIFA U-20 월드컵 코리아 2017」가 4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한 최종 점검으로서,

* (6개 개최도시) 수원·인천·대전·천안·전주·서귀포

-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지원하에 국정원 경기지부·경기남부경찰청·수도군단·제51보병사단·한강유역환경청·경기도 등 6개 기관 400여명이 참가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훈련이다.

- 정부는 지난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(위원장 국무총리)를 통해 U-20 월드컵을 국가중요행사로 지정하였으며*, 작년 12월 관계기관 합동 「U-20월드컵 대테러·안전대책본부」를 구성,

* 테러방지법 제6조, 제10조 : 대테러센터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중요행사 안전대책 수립

- 경기장 등 대회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‘대테러·안전대책 세부시행계획’을 수립·배포하는 등 단계별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한 대회의 기반을 조성해 왔다.

- 이번 훈련은 월드컵 대회기간중 관중들에 대한 폭탄 또는 화학테러나 선수단 인질억류 등 국제테러조직의 동시 다발적 복합 테러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,

- 상황전파 등 초동조치 단계부터 폭발물 처리, 테러범 진압 등 관계기관의 합동작전 절차와 사상자 구조·구급을 위한 협력대응의 순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특히, 유럽 베를린과 니스 등에서 발생했던 트럭에 의한 차량돌진 테러와 같은 로테크(Low-Tech) 테러*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,

*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테러로서 최근 유럽 등지에서 증가추세

- 최근 이용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비하여, 돌진하는 드론을 격추시키는 전술훈련도 실시하였다.
- **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** 이 자리에서,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해외 테러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**엄중한 안보 상황**에서 개최되는 U-20 월드컵은 **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**라는 점을 강조하고,
 -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대회를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함으로써, **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안전성을 알리는 계기**로 삼을 것을 당부하였다.
- 또한, 이번 훈련이 수원 등 6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되는 월드컵 경기에 대비하여 테러상황에 대한 **현장 대응능력**을 강화하고 대회 **안전확보 의지**를 재확인하는 **성공적 훈련**이었다고 평가하고,
 - 경기장 등 **최일선 현장**에서부터 관계기관간 테러예방과 대비태세 강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,
 - 테러 **위해정보**에 대한 모니터링 등 **긴밀한 정보공유**와 함께 철저한 **상황관리 체계**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.
- 이와 관련, 정부는 대회기간 전후 6개 지역별 **대테러 현장안전통제실** 가동 및 **비상 근무체제**를 유지하고, 경기장을 포함한 테러대상시설의 **경비인력을 증원 배치**하는 등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.